

전주 첫 마중길 조성 등지 내몰림 예방

시, 역전 앞 주변상가 주민들과 지역발전 공동체 상생협약... 주민편의 위해 환경 개선 등 추진

전주역 앞 대로가 전주의 첫인상을 바꿀 '전주 첫 마중길'로 조성되는 가운데 상인과 건물주, 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회장 노치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첫 마중길 주변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영세사업자 등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현상으로, 국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에서 사후약방문식 상생협약이 체결된 적은 있지만 발생 예상지역에서 민간주도로 예방적 차원의 상생협력에 나선 것은 국내 첫 사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첫 마중길 주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들과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상생방안을 도출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생협의회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안정적인 상권과 지역 정체성 회복을 위해 지역발전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또, 상생협의회 문화·환경분과 소속 전문가 그룹에서는 특색 있는 지역 문화화장품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거리환경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계획했다. 시는 첫 마중길 주변 상가와 주민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 노치화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첫 마중길 주변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 편의를 위해 전주 첫 마중길 주변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는 지역직능단체, 지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활동가, 전문가, 주민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경제분과와 문화·환경분과, 공동체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의견제시, 거리 및 상가 조성 등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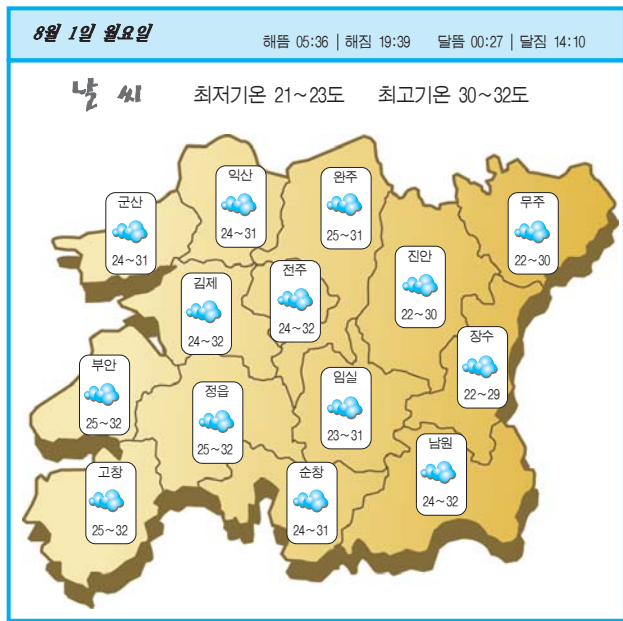
아이디어 제안하고, 지역생태계와 상권 보호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문제 최소화과 지속적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상생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서울 성동구 등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역공동체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 모두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군산시 도시재생대학, 12일 개강

군산시가 지원하고 군산대학교가 운영하는 '2016년 군산시 도시재생대학'이 오는 12일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군산시 도시재생대학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의 중심축인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 및 군산 시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시키고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대학은 ▲마을 활동가, 공동체 리더, 협동조합 일꾼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스튜디오 프

로그램'과 ▲도시재생 관련 이슈를 비롯 군산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대중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특히 세미나 프로그램인 '금요강좌'로 이원화하여 병행된다. 특히 세미나 프로그램인 '금요강좌'는 '군산다움을 찾다'라는 부제에 걸맞게 역사, 경제, 생활, 예술, 도시 각 분야의 내용들을 '군산의 근대', '군산의 발전', '군산의 오늘', '군산의 미래'라는 4가지 테마로 진행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군산의 역사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시, 청년희망단 발대식 갖고 힘차게 출발

발굴된 정책 관련 부서 검토 거쳐 시 청년정책으로 시행

전주시 청년정책의 디딤돌이 될 '청년희망단'이 지난달 2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을 알렸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희망단은 모두 60명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청년희망단은 직장인 22명, 대학생 21명, 자영업자 7명, 취업준비생 7명, 기타 3명이며, 연령별로는 만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이 28명, 만 2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이 14명으로 20대가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공식 위촉장을 수여받은 청년희망단은 이날 총회를 개최하고 4개 분과(기획소통, 문화교육, 일자리정책, 청년복지) 위원장과 총무를 선출하고, 4개 분과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청년희망단을 대표하게 된다.

이날 1부 위촉식과 총회에 이어 열린 2부 행사는 청년들의 소통시간으로 진행됐다.

청년들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관련 대화주

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청년희망단의 활동방향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6월 24일 청년희망단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비영리단체 '청년들' 오윤덕 조사연구팀장의 전주청년 실태보고서 발표를 공유하고,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인이 시의원으로부터 조례 설명 및 토론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발대식을 마친 청년희망단은 분과위원회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청년희망단 8명의 정책위원은 향후 구성될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수립 과정에 발언권을 갖게 된다.

청년희망단에서 발굴된 정책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에 상정되고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전주시 청년정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청년희망단 출범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찾아갈 소중한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며 "전주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첫걸음을 뗀 만큼 청년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으로 청년 가슴에 희망을 심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

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시즌을 맞이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여름방학 맞아 ▲한지체험학습 ▲악기체험 ▲도담도담놀이(민속놀이체험) ▲전통문화 큰나무 키움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전통 음식교실 등 총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달 29일 밝혔다.

한지체험학습은 8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3회 진행되며, 오후 3시 당일 교육시작 10분전 선착순으로 모집된 인원 30명과 진행된다.

악기체험, 도담도담놀이터는 8월부터 매주 토요일 4일간 총 8회에 걸쳐 오전 11시와 오후 1시 각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오는 6일과 13일에 진행되는 악기 체험 시간에는 한국 전통악기인 장구와 북, 합죽마을에서 직접 제작한 월드악기 뱀부(Bamboo)를 직접 만지고 연주해 볼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된다.

20일과 27일 도담도담놀이터 시간에는 새끼꼬기, 용기놀이, 농기구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4개 체험이 15분씩 총 1시간 진행된다.

9일부터 19일 주말을 제외한 8일간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전통문화 큰나무 키움교실은 수제도장 만들기, 비빔밥 모양의 예곡백 만들기, 향낭 모시모빌 만들기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청결·세상 정부 3.0

같은 마음의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모두의 에너지절약이 지구를 살립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여름철 실내온도 26℃로 절약은 더하기

실내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낭비는 줄이기

도시지역을 신재생 에너지로 희망은 두배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기쁨은 나누기

전라북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회 **전북지회본부**